

## 『三國遺事』의 桓雄과 炎帝神農의 기록학적 비교고찰

A Philological Comparative Study on HwanWoong of Samgukyusa and YanDi-ShenNong

尹 順(Soon Yoon)\*

### < 목 차 >

1 序言	단계 상의 위치
2 桓雄과 炎帝神農의 神格 비교	4 『三國遺事·古朝鮮』條의 기록을 통한 桓雄年代 고찰
2.1 太陽神	4.1 “『魏書』云, 乃往二千載.”
2.2 農業神	4.2 “御國一千五百年·封箕子於朝鮮”
2.3 醫藥神	5 結言
2.4 文化英雄	<참고문헌>
3 桓雄과 炎帝神農의 역사·문화발전	

### <국문초록>

『三國遺事』卷一의 「古朝鮮」條를 신화와 역사기록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檀君神話 속의 桓雄과 중국의 炎帝神農의 神格을 비교 고찰하였는데, 그들은 매우 유사한 신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류의 생존과 농업에 필수적인 太陽神, 농경을 가르친 農業神, 그리고 藥草의 성질을 밝혀내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했던 醫藥神 신격과, 문물을 발명하고 문화를 창시했던 文化英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발전해 가는 단계상에서 神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創世 → 教化 → 統治의 과정으로 변천해 가는데, 환웅과 염제신농은 모두 教化의 단계에 있었고, 교화의 내용은 모두 그들의 신격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환웅신화와 염제신농신화는 고대 한국과 중국의 정신문화 발전과 물질문명 발달과정 중 같은 단계에서 발생한 신화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역사기록 부분을 통하여 『魏書』의 본질과 단군·환웅의 시대를 고찰하였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위서』의 저술 時點을 밝히는 것이고 ‘魏’는 魏(衛)滿朝鮮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만조선으로부터 2천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문기록의 “唐堯同時”說과 매우 근접한다. 그러므로 『위서』는 중국의 史書가 아니라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크다.

본문의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와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단군의 건국년대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이다. 箕子東來는 殷周交替 때(B.C 1122년)로, 단군이 이때까지 1500년 간 나라를 통치하였으므로 고조선 건국년대는 B.C 2622년이다. 이는 堯임금보다 훨씬 이전인 黃帝(B.C 2698-2358)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단군의 父神인 환웅의 시대는 아무리 늦어도 B.C 3000년 전후일 것인 바, 이는 염제신농(B.C 3218-2699) 시대에 해당되므로 환웅과 염제신농이 교화활동을 한 것도 동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삼국유사·고조선』편은 우리민족의 上古時代 역사를 규명해주는 기록학적으로 의의가 깊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요어 : 三國遺事, 염제신농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bexy1404@hanmail.net)

<ABSTRACT>

[Go-Choseon], the first volume of Samgukyusa,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part of myth and that of history. There are very similar divinities between Hwanwoong in the myth of Dangun and YanDi-ShenNong of China: the solar divinity essential for survival of mankind and agriculture, the agriculture divinity said to have taught farming, the medicine divinity said to have taught the characteristics of herbs and how to prevent diseases, the cultural hero who delivered civilization, and son 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age of myth to the age of history, the roles of gods had change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civilization and rule. The roles of Hwanwoong and YanDi-ShenNong were civilization and it was related with their divinities. Hence, regardless of a little difference, the myth of Hwanwoong and that of YanDi-ShenNong were created at the same stage of spiritual and material civilizations of Korea and China.

This paper looks at the essence of [Wiseo] and the age of Hwanwoong through historical records. In my opinion, [Wiseo] is not a chinese history book. The record, "According to [Wiseo], there had been Dangun-Wanggum 2,000 years ago" indicates the time [Wiseo] was written. 'Wi' means Wiman-choseon. Going back about 2,000 years from Wiman-choseon, the historical dates of the establishment of [Go-Choseon] almost dovetails to the age of King Yao.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iseo] is a history book of Wiman-Choseon dynasty which was written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 dynasty by showing it succeeded to the Dangun-Choseon dynasty.

The sentences, "governed the country for 1,500 years" and "conferred Gija the position of king of Choseon" are very important records showing the age of the establishment of Dangun-Choseon. Gija came to Choseon in B.C. 1122 when Yin replaced Zhou in the Chinese Continent. From the fact that Dangun had governed Choseon, we could reason out that Go-Choseon was established in B.C. 2622 that is much earlier than the era of king Yao, and that corresponds with the era of HuangDi(B.C. 2698-2358). Hence, the era of Hwanwoong, the father-god of Dangun, might be later than B.C. 3000 which conforms to the era of YanDi-ShenNong(B.C. 3218-2699). Therefore, this paper contends that Hwanwoong and YanDi-ShenNong played the role of civilization in the same era.

[Go-Choseon], the first volume of Samgukyusa is philologically very valuable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origin of Korean nation and its ancient history.

Keywords : Samgukyusa, YanDi-ShenNong

## 1 序 言

세계의 어느 민족이나 모두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류는 創世神話·자연신화·동물신화·식물신화·영웅탄생신화·民族起源神話·開國神話·巫俗神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어느 민족이나 가장 먼저 일컫는 것은 인류창조신화를 포함하는 창세신화이고, 그 다음은 그 민족이 發祥한 민족기원신화와 개국신화일 것이다. 우리나라 古文獻에는 창세신화나 인류창조신화가 없다. 단지 巫俗神話에만 그에 관한 신화가 있으나, 오랜 시간동안 口傳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동안 적지 않게 변형되었을 것이며, 또한 지방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우리민족 공통의 古代神話라 하기 어렵다.

고대신화는 그 민족의 조상이 上古시대에 삶을 영위했던 역사로서,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하는 실상을 후손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檀君神話를 통하여 우리의 상고시대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데, 『三國遺史』의 저자인 一然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창세신화나 인류창조신화를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卷一「紀異」篇「古朝鮮」條 즉 단군신화는 우리민족의 발상과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개국을 기록하고 있는 唯一無二한 귀중한 기록이다.

신화를 연구하는 여러 학파 중에서 인류학파는: “신화는 모종의 사상의 산물인데, 이러한 사고는 각 민족이 모두 거쳐왔던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유사한 신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林惠祥 1971, 7; 張德順 1978, 37-41). 그 중 타일러(E.B. Tylor, 1832~1917)는: “신화의 연구는 마땅히 각 민족의 유사한 신화를 서로 비교하여 그 근본적인 사상을 발견해 내야 하지, 단지 하나의 고립된 신화로써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林惠祥 1971, 33)”라고 신화비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필자가 신화를 연구하는 일관된 관점이다. 즉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생각은 비슷하고 人智의 발전과정도 흡사한데, 단지 그 민족이 처한 지리적인 환경과 기후의 영향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古代 韓·中 두 민족의 생활과 사상을 반영하는 신화에도 반드시 그 유사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학파의 관점으로 『三國遺事』의 桓雄과 三皇의 하나인 炎帝神農의 神格을 비교 고찰하고, 그들이 역사와 문화 발전단계 상에서 점했던 위치와 담당했던 역할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 桓雄과 炎帝神農의 神格 비교

『三國遺史·紀異』卷一「古朝鮮」條의 神話를 우리는 檀君神話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桓雄이 활동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화의 주인공은 오히려 환웅이므로, 이 신화는 桓雄神話라 불러야 타당할 것이다.

기록에는 환웅의 신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환웅이 여러 신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아래에서 太陽神 農業神 醫藥神 文化英雄의 네 가지 신격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1 太陽神

#### 2.1.1 桓·太伯山·白岳山 阿斯達·朝鮮

朝鮮 肅宗시대 北崖老人은 『揆園史話·肇判記』에서 桓因의 ‘桓’은 光明이고 ‘因’은 만물이 생성되는 本源이라고 풀이하었다.<sup>1)</sup> 崔南善은 桓因이 ‘하늘’ 혹은 ‘하느님’을 뜻하는 말의 한문 音譯字이며, ‘환’은 국어의 光明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 바,<sup>2)</sup> ‘환’을 ‘환-하다’의 어간 ‘환’의 음역으로도 본 것이다. 그러므로 桓因은 ‘환한·빛나는, 만물의 근원·하느님’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桓因은 天上에서 가장 빛나는 至高的 神임을 알 수 있다.

桓雄은 이러한 환인의 아들이므로 당연히 그 부친의 속성을 계승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桓雄의 ‘환’ 역시 위와 같은 의미이다. ‘雄’은 雌雄의 雄으로 남성을 나타낸다. 즉 桓雄은 크고·밝고·빛나는 男神임을 나타내고 있다.

환웅이 하강한 곳은 太伯山이고, 후에 단군이 도읍을 정한 곳은 白岳山 阿斯達이며, 국호는 ‘朝鮮’이라 칭하였다. 太伯山은 太白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는데,<sup>3)</sup> 山名들 속의 ‘白’字와 ‘阿斯達’, ‘朝鮮’이 모두 光明과 관련 있는 명칭들이라고 李丙濤는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1) “桓者, 卽光明也, 象其體也. 因者, 本源也, 萬物之藉以生者也(申學均역주, 1986. 명지대학교 출판부).”

2) 최남선, 「檀君古記箋釋」: “桓因은 현대어 ‘하늘’ 혹 ‘하느님’의 근원이 되는 무슨 語形의 寫音일 듯 한데 이것을 한문으로 ‘桓因’이라고 쓴 것은 …… 음과 뜻이 다 비슷하므로 편의상 옮겨 쓴 것이다. …… ‘환’의 字音 ‘환’은 국어의 光明을 나타내는 말이다(李恩奉 1994, 22).”

3) 『三國遺事』(1281년 무렵)보다 조금 늦게(1287년) 저작된 李承休의 『帝王韻紀』卷下「本紀」에는 ‘檀君’이 ‘檀君’으로, ‘太伯山’은 ‘太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白岳은 흔히 말하는 白山·朴山과 마찬가지로 ‘붉산·붉뢰·붉돌’의 借字로서, ‘光明한 산·陽明한 산’, 다시 말하면 ‘환한 산’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면 ‘阿斯達’도 그와 유사한 의미의 말로 보아야 하겠다. …… ‘朝鮮’은 종래에 字面에 의하여 ‘우명’ 혹은 ‘東表日出地’로 해석하여, …… 그래서 나는 ‘아사’를 ‘朝鮮’이 나타내는 漢字義와 근사한 뜻으로 해석하여 보았다. …… 우리의 같은 우랄 알타이語에 속하는 일본어에는 아침을 ‘아사’라 하고, …… 티베트 버어미語로는 아침을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보면 ‘阿斯’는 바로 ‘朝·朝光·朝鮮’의 뜻임을 알 수 있고, ‘達’은 원래 산악의 뜻에서 산밑의 평지라든가 谷地 內地 방면의 뜻으로 쓰여졌으니, ‘양돌(양지쪽)·음돌(음지쪽)·빗돌(傾斜地)’의 ‘돌’이 즉 그것이다. 묶어 말하면 ‘아사달’은 즉 朝山·朝光의 地·양지(양달)·陽岡·陽原·陽谷의 뜻이 되는 동시에 위에서 말한 ‘白岳(붉뢰)’과 상통되는 말임을 더욱 알 수 있다. …… 하영돈 이러한 地名에 의하여 古代 우리의 先民들이 ‘해 뜨는 곳’·‘陽明한 곳’을 神聖視하여 그들의 住地에 --백산·백악·박산 등과 한 가지-- 그러한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尙書·堯典』에는 ‘宅嶠夷曰陽谷’이라 한 陽谷(陽谷)이 나타난다. 陽은 즉 陽으로, 이 陽谷이야말로 ‘양돌(아사달)’과 꼭 같은 뜻이다. 嶠夷는 지금의 山東半島에 있던 우리 先民(貂族)의 일족을 가리킨 것이니, 嶠夷의 宅都를 陽谷이라 했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연구할 대상의 하나가 된다(이병도 1977, 58-61).

즉, 白岳은 ‘밝은 산’이고, 太伯山은 ‘크게 밝은산(흔붉뢰)’이며, 阿斯達과 朝鮮은 ‘아침에 밝고 환하게 빛나는 곳’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태양이 뜨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白’字가 든 山名으로, 白頭·太白·長白·小白·白岳·白雲臺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태양이 뜨고 지는 높은 산을 일컫는 이름들로 太陽崇拜의 흔적이다. 산악 지방에 살던 고대인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그곳이 태양이 살고 있는 곳이라 여겨, 가장 높고 가장 태양이 빛나는 산을 ‘붉뢰’ 혹은 ‘흔붉뢰’라 이름하고, 太陽神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여겨 숭배하였을 것이다. 太白山에 하강하는 환웅은 바로 해가 뜨는 형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관장하던 ‘人間三百六十餘事’의 360이라는 숫자도 또한 태양이 일년동안 뜨고 지는 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그러므로 환웅은 높은 산에 환하게 떠

4) 崔南善 「檀君古記箋釋」: “<三百六十>: 온갖 것을 의미하는 어귀로 볼 것인데 필시 1년 360일에서 연상된 수인가 한다. 태양숭배로 유명한 古代 멕시코 성전에는 각각 120단을 가진 삼층계, 곧 360

오르는 해를 표상한 太陽神인 것이다.

### 2.1.2 炎帝神農 -- 烈山氏

神農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農神이므로 그가 곧 農業神임을 드러내고 있다. 농업은 본래 태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秦漢시대에 이르러 神農이 炎帝와 연결되고 나서야<sup>5)</sup> 비로소 그 太陽神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班固는 『白虎通·五行』에서 炎帝를 太陽神(“炎帝者, 太陽也”)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山海經·海內經』에는 炎帝의 후예 噎鳴이 “歲十有二”를 낳았다고 하였는데,<sup>6)</sup> 이것은 분명한 一年 12個月을 말하는 것으로, 桓雄神話의 ‘三百六十餘’와 相通하는, 太陽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다.

태양과 불은 모두 밝고 빛나고 따듯하다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炎天의 ‘炎’字는 불火변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炎帝는 불의 덕(火德)으로 천하를 다스려 南方의 天帝가 되었다고 전해진다.<sup>7)</sup> 그는 ‘烈山’<sup>8)</sup>에서 출생하여 烈山氏로도 불리우

의 계단이 있는데 이 360이라는 수는 그 수 외로 두는 5閏日을 빼면 1개년의 일수에 부합하는 것이며 …… 이 구절은 이렇게 천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태양이 1년 동안의 운행으로 경과하는 노정을 구상화하였다고 이르는 것이다(T.w.Danzel: Magic und Geheimwissenschaft). 神市行政의 조목을 360여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宇宙의 관찰에 유래하는 숫자이며 그 ‘餘’라는 한 글자가 또한 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李恩奉 1994, 31).

- 5) 炎帝와 神農이 결합된 것은 秦·漢시대의 『世本·三皇世系』에서 비롯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그러나 염제와 신농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何光岳 「炎帝氏族的繁衍和遷徙」: “最早主張神農與炎帝有別者是管子. 後來崔述「補上古考信錄」更說: ‘神農非炎帝.’ 其實, 神農和炎帝是同一氏族的前後兩個不同的首領. 神農氏在前, 氏族以首領的名稱為名, 故他所在氏族稱神農氏. 神農氏族發展到後來, 出現了一個有名的首領炎帝, 人們也以他的名字來稱號氏族, 而且以後的首領也都沿用炎帝稱號, 于是, 神農氏族便成了炎帝氏族, 以致後來人們也把神農, 炎帝混爲一人了.” (『株洲市修復炎帝陵籌備委員會 1988, 8-9).
- 6) “炎帝之妻, 赤水之子聽臾生炎居, 炎居生節竝, 節竝生戲器, 戲器生祝融. 祝融降處于江水, 生共工. 共工生術器, 術器首方顛, 是復土壤, 以處江水. 共工生后土, 后土生噎鳴, 噎鳴生歲十有二.”
- 7) 『左傳·昭公十七年』: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命.” 『禮記·月令』: “南方曰炎天, 其帝炎帝.” 『淮南子·天文訓』: “南方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 8) 烈山은 列山·厲山·連山으로도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음이 비슷해서 달리 씌어진 것이다. 『禮記·祭法』: “是故厲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農.” 鄭玄注云: “厲山氏, 炎帝也, 起於厲山. 或曰, 有烈山氏.” 孔穎達疏云: “引『春秋左傳』昭二十九年, 蔡墨辭, 云厲山氏, 炎帝也, 起於厲山者. 按『帝王世紀』云, 神農氏, 本起於烈山. 或時稱之, 神農即炎帝也. 故云, 厲山氏, 炎帝也. 『漢書·律曆志』: “號炎帝, …… 又曰魁隗氏, 又曰連山氏, 又曰烈山氏.” 『路史·禪統紀』: “炎帝神農氏生于列山之石室, 官長

는데, ‘烈山’은 猛烈하게 불에 타는 山을 가리키는 말로 바로 「孟子·滕文公上」 편에서:

舜이 益에게 불을 관장하게 하니, 益이 山澤에 불을 놓아 태웠다(舜使益掌火, 益烈山澤而焚之).

라고 말한 ‘烈山’이다. 이는 바로 ‘환히 빛나는·불처럼 붉게·휙휙 타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환웅신화의 太白山과 상통하는 것이다.

‘太白山’과 ‘烈山’은 韓·中 양국의 古代 先民들 마음 속의 神山이다. 고대인들은 太陽神이 그 境域 내에서 가장 높은 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의 태양이 산악지방에 뜨고 질 때 가장 높은 산에서 뜨고, 가장 높은 산으로 먼저 질 것이며 그때 그 산은 또한 가장 밝고 불처럼 붉게 보였을 것이다.

## 2.2 農業神

### 2.2.1 炎帝神農 -- 「人身牛首」

태양신이 農業神을 겸하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것이며, 農業神의 모습은 대체로 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sup>9)</sup> 소는 농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동물이므로, 농업신인 堯제신농이 「人身牛首」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唐 司馬貞이 보충한 『史記·三皇本紀』에 이르기를:

堯제신농씨는 姜姓이다. 어머니 女登은 有蟻氏의 딸로 少典의 妃인데, 神龍이 감응

師事, 悉以火紀, 故稱炎焉. 肇迹列山, 故又以列山·厲山爲號.”

- 9) 崔南善 「檀君과 三皇五帝」: “農業神과 太陽神의 互通은 거의 各民族의 通례로, 대개 太陽이 萬物의 發生長育에 지대한 공덕이 있어 邃古로부터 이들 母神으로 숭앙하고, 이러한 太陽의 공덕은 農業民에게 치우쳐 感念됨으로 다시 이를 農業神이라 하기에 이름이니, 埃及의 ‘오시리스’와 ‘셈’民族의 ‘바알’과 같음은 太陽神으로 農業神 노릇하는 이 중에 두드러진 適例라 할 것이다. 이렇게 農業神·天神·太陽神은 흔히 셋붙이로부터 다니고, 牛로써 그 表象을 通함이 상례라고도 하겠는데, 支那에서 農業의 祭天인 郊에 꼭 牛를 牲으로 하고 農業神은 牛形이라고 전함 등은, 또한 天神이자 農業神인 그의 太陽神일 것을 徵계 하는 一端일 듯함. …… 支那의 農業神은 이름 그대로의 神農氏요, 神農氏는 號를 炎帝라 하여 太陽神의 本質을 가진 자인데, 五天帝의 중에 南方의 天界를 司한 炎帝라는 이가 필시 神農과 동일한 자로, 天帝가 東西南北中으로 五分한 후에야말로 炎帝가 南天의 帝만 된 것이지만, 그 本始로 말하면 炎帝 卽 天帝이었을 줄을 짐작할 수 있다”(韓國史Ⅱ 1973, 310).

하여 염제를 낳았다. 사람 몸에 소의 머리인데, 姜水에서 성장하여 이로써 姓을 삼은 것이다. 火德으로 왕이 되어 염제라 하였고 불로써 이름을 삼았다.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어, 이의 효용으로 만민을 교화하고, 경작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神農이라 불렀다.<sup>10)</sup>

라고 하였는데, 이 「人身牛首」의 모습에서 炎帝神農氏 시대에 이미 소를 길들여 농경에 활용했던 목축농경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烈山澤而焚之”의 烈山은 곧 불을 놓아 산을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나무와 풀을 태워 재를 비료로 썼거나, 혹은 산 위의 초목을 태워 없앤 후 火田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원시농경 중의 火耕法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태양신 염제신농 烈山氏가 농업신도 겸했던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염제신농 이전의 시대는, “그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사슴의 무리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원시모계사회였다. 그 경제형태는 채집 수렵생활로, 짐승의 고기나 물고기 조개류를 잡아먹거나 열매 과일을 따먹고 살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독초에 상하기 일쑤였다. 神農이 만민에게 농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穀食을 알게 되어, ‘농사를 지어먹고, 옷감을 짜 옷을 입으며’, 피차 남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는 태평시대가 되었고, 농업생산의 확대를 위해 쟁기와 보습을 제조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농의 인류에 대한 위대한 공헌들이었다.<sup>11)</sup>

### 2.2.2 桓雄의 「主穀」과 「蒜」

태양숭배는 그 발생 시기가 원시농경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농업에 있어서 태양은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웅신화 속에는 환웅이 농업신이라는 말이 없지만, 앞에서 본 崔南善의 「壇君古記箋釋」에서 태양신은 농업신을 항상 겸하고

10) “炎帝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有嬌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炎帝. 人身牛首, 長于姜水, 因以爲姓. 火德王, 故曰炎帝, 以火名. 斫木爲耜, 揉木爲耒, 耒耜之用, 以教萬民. 始教耕, 故號神農.”

11) 『莊子·盜跖』: “神農之世, 臥則居居, 起則于于,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樂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無有傷害之心, 此至德之隆也.” 班固『白虎通·號』云: “古之人民, 皆食禽獸肉, 至於神農, 人民衆多, 禽獸不足, 於是製耒耜, 教民農作, 神而化之, 使民宜之, 故謂之神農也.” 『淮南子·修務訓』: “古者民茹草飲水, 采樹木之實, 食羸蠃之肉, 時多疾病毒傷之害. 于是神農始教民播種五穀, 相土地宜燥濕肥墝高下.”

있다는 인용문으로부터 태양신 환웅 역시 농업신도 겸하고 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桓雄은 太伯山 神檀樹 아래에 하강하여, 신시를 열고 風伯·雨師·雲師를 데리고 ‘主穀’ 하였다고 했다. ‘主穀’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신농씨의 農業神적 성격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환웅이 태양의 표상이듯, 風伯·雨師·雲師는 바람과 비와 구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와 구름은 곧 물로서, 이 또한 농경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이는 炎帝神農와 관계된 여러 물에 대한 기록들, 예를 들면 醴泉·九井·行雨·穀雨·時雨·神農澗<sup>12)</sup> 등과 마찬가지로 농경에 대한 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金杜珍은 「檀君古記의 理解方向」에서, ‘蒜’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당시의 농업기술이 이미 경작농업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檀君古記」에 나타난 風·雨·雲의 관념이나 마늘의 등장은 그 사회가 庭園이나 야산을 경작하는 농업기술의 단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환웅이 穀을 주관한 것으로 보아 곡물의 재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미 B.C 7C 이전에 곡물로 조(粟)·기장·수수·콩과 같은 것이 있어 발곡식이 주가 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稻作이 행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체로 「檀君古記」가 형성되는 농업생산의 단계는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李恩奉 1994, 264).

즉 환웅의 ‘主穀’은 염제신농이 농경을 가르쳐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것과 상통하는 農業神 신격을 드러내는 기록인 것이다.

## 2.3 醫藥神

### 2.3.1 桓雄神話의 「靈艾一炷·蒜二十枚」

환웅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靈艾)과 마늘(蒜)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곰은 三七日 동안 금기하여 熊女로 化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환웅이 약초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쑥과 마늘은 민간요법에서

12) 『尸子·君治』: “神農理天下, 欲雨則雨. 五日爲行雨, 旬爲穀雨, 旬五日爲時雨. 正四時之制, 萬物咸利, 故謂之神.” 『水經注·滌水』: “神農既誕, 九井自穿, 汲一井則衆水動.” 明陳仁錫『潛確類書』卷三十一云: “神農澗在衛輝府溫縣. 神農採藥至此, 以仗畫地, 遂成澗.”

모두 사악한 기와 독기를 없애고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찍이 『詩經』<sup>13)</sup>과 『孟子』<sup>14)</sup>에서도 이것을 말한 바 있다. 이 신령한 쑥(靈艾)은 질병이 많은 해에는 그것을 미리 알고 다른 해보다 일찍 썩이 난다고 하는데,<sup>15)</sup> 쑥은 특히 부녀자들에게 효과가 있어 아들을 낳게 하고,<sup>16)</sup> 마늘은 邪氣와 毒氣를 제거하는 인류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이라 한다. 환웅은 이러한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主命·主病’, 즉 生·老·病·死 등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을 주관한 것으로 보아 그는 틀림없는 醫藥神인 것이다.

### 2.3.2 炎帝神農의 「嘗藥」과 「鞭藥」

태양은 건강의 원천이다. 햇볕은 소독의 작용도 있고 약초도 자라게 하므로 醫藥과도 관계가 깊은데, 태양신이 醫藥神을 겸하고 있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것으로, 그리스 신화 속의 태양신 아폴로도 醫療神을 겸하고 있다. 염제신농의 여러 신격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의약신 신격인 바, 그의 事蹟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약초를 모두 직접 맛본 ‘嘗藥’과, 약초를 채찍으로 쳐서 성질을 알아낸 ‘鞭藥’이다.

『搜神記』卷一: “신농은 붉은 채찍으로 百草를 쳐서, 그 평온하고·독하고·차고·따뜻한 성질을 모두 알아내었다(神農以赭鞭鞭百草, 盡知其平·毒·寒·溫之性).”

『述異記』卷下: “太原 神釜岡에 신농이 약초를 맛보던 숲이 있다. 成陽山 산중에는 신농이 약초를 채찍으로 쳤던 곳이 있는데, 일명 神農原이라 하기도 하고, 藥草山이라고 도한다. 산위에 紫陽觀이 있는데 전해지기로 신농이 이곳에서 百藥을 판별해 내었는데 그중 천년된 龍腦가 있었다고 한다(太原神釜岡, 有神農嘗藥之鼎存焉. 成陽山中, 有神農鞭藥處, 一名神農原, 亦名藥草山. 山上紫陽觀, 世傳神農於此辨百藥, 中

13) 『詩經·王風·采芣』: “彼采艾兮.” 毛傳云: “艾, 所以療疾.”

14) 『孟子·離婁上』: “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 集注云: “艾, 草名, 所以灸者, 乾久益善.”

15) 宗懷『荆楚歲時記·五月五日』條: “五月五日, 四民並躡百草, 又有鬪百草之戲, 采艾以爲人, 懸門戶上, 以禳毒氣.” 按: “宗測字文度, 嘗以五月五日鷄未鳴時采艾, 見似人處, 攬而取之, 用灸有驗. 『師曠占』曰: ‘歲多病則艾先生.’ “以艾爲虎形, 或翦綵爲小虎, 貼以艾葉, 內人爭相戴之.” 『太平御覽』卷三十一引『玉燭寶典』: “五月五日采艾懸于戶上, 以禳毒氣.” 『燕京歲時記』: “端午日用菖蒲艾子插于門旁, 以禳不祥. 亦古者艾虎蒲劍之遺意.”

16) 『本草綱目』: “(艾)主治灸百病, 可作煎, …… 婦人漏血·利陰氣·生肌肉·辟風寒·使人有子, …… 搗汁飲, 治心腹一切冷氣鬼氣.” “(蒜)歸脾胃, 主霍亂, 腹中不安, 消穀理胃, 溫中, 除邪瘴毒氣, 主溪毒, 下氣, 治蠱毒, 傳蛇蟲沙虱瘡.”

有千年龍腦).”

『搜神記』와 『述異記』는 모두 염제신농이 풀을 채찍질 한(鞭草)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가 사용했던 채찍은 바로 ‘赭鞭’이다. ‘赭’는 적색을 말하는데 붉은 색은 사악한 나쁜 기운을 제거시키는 작용이 있는 색깔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염제신농의 火神적 성격을 드러낸다. 불 또한 뜸뜸(灸) 때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상고시대 인류에게는 400여종의 병이 있었는데, 신농이 365가지의 치료약을 찾아내었다고 한다.<sup>17)</sup> 신농은 이처럼 풀들을 직접 맛봐서 약초와 독초들을 가려내었기 때문에 항상 독초에 중독이 되어, 어느 날은 하루에 70차례나 중독이 된 적도 있다 한다.<sup>18)</sup> 사람들은 신농이 약초를 맛보았다는 것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신농의 신체가 투명한 옥체(神農乃玲瓏玉體)<sup>19)</sup>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독될 때마다 보이기 때문에 매번 모두 해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었다. 그러나 결국은 중독되어 죽었고, 심하게 중독된 나머지 그의 얼굴은 흑색으로 변했을 것이라 상상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민간에서 모시고 있는 신농의 神象은 모두 흑색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 2.4 문화영웅

歷史神話는 종종 歷史와 神話의 분계가 불분명하여, 어떤 신화들은 실제로는 역사적 史實에 근거하지만 신화적인 색채가 더욱 두드러져서 역사인지 아닌지 의심받게 되는데, 이것이 上古시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최남선은 「檀君古記箋釋」에서,

17) 『路史·後記』:“(神農)審其平毒,旌其燥寒,察其畏惡,辨其臣使,厘而三之,以養其性命而治病.一日之間而七十毒,極含氣也.病正四百,藥正三百六十有五,著其本草,過數乃亂.”

18) 『淮南子·修務訓』:“古者民茹草飲水,采樹木之實,食羸虵之肉,時多疾病毒傷之害.于是神農乃始教民播種五穀,相土地,宜燥濕·肥瘠·高下.嘗百草之滋味,水泉之甘苦,令民知所辟就.當此之時,一日而遇七十毒.”

19) 『山海經·大荒西經』:“有互人之國.炎帝之孫名曰靈恕,靈恕生互人,是能上下于天.”袁珂注:“明周游『開闢演繹』第十八回王子承「釋疑」:‘後世傳言神農乃玲瓏玉體,能見其肺肝五臟,此寔事也.若非玲瓏玉體,嘗藥一日遇十二毒,何以解之?但傳炎帝嘗諸藥,中毒者能解,至嘗百足蟲入腹,一足成一蟲,遂致千變萬化,炎帝不能解其毒而致死,萬無是理,此訛傳耳.’無論‘寔事’或‘訛傳’,要爲後世神農嘗藥之民間傳說,可無疑問.則炎帝之德施亦薄,愛念亦堅矣.”

희랍고대에도 <에우헤메로스>(Euhemerus 서기전 300년경)라는 철학자가 나서 “제신은 본디 實在하던 사람으로서 그 비상한 자질이 대중의 존경을 받다가 오랜 동안에 神格化되고 이렇게 神話化한 위인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신화인 것이다”는 학설을 세우니 神話學상의 이른바 <에우헤메리즘>(Euhemerism)이 그것이다. 이렇게 서양에도 神話를 歷史의 변장으로 보는 학파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그것이 동양과 같이 대단치 아니하며 동양에서도 中國에는 오히려 歷史化·合理化하다가 남은 단편이 꽤 많이 남아 있는 편이로되 東北아시아, 특히 朝鮮에는 歷史로 위장된 약간의 國祖說話 외에 거의 다른 것이 없다 할 만한 지경이다(李恩奉 1994, 19).

라고 했는데, 환웅과 염제신농의 신화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농경을 가르친 것과, 일상생활과 문화발전 방면의 여러 발명과 공헌들을 보면 신화인물이며 또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인물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그들을 문화영웅이라 칭하였다.

#### 2.4.1 炎帝神農의 「日中爲市」와 「作琴·陶」

염제신농은 쟁기와 보습 이외에도, 농경에 필요한 호미와 삽 그리고 수확한 곡식을 찧는 절구 등의 농기구를 발명하여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물을 파고 부역을 만들어 만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살도록 제도하였으며,<sup>20)</sup> 죽은 후에도 백성의 끼니를 보살피고자 부역을 관리하는 조왕신이 되었다.<sup>21)</sup>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陶器와 瓮기·기와 등의 생활용기와,<sup>22)</sup> 활과 화살 칼 갑옷 같은 兵器도 발명하였으며,<sup>23)</sup> 茶를 마시는 습속도 그가 창시하였다고 전하여진다.<sup>24)</sup> 그는 또한 악기를 발명하고 宮·商·角·徵·羽의 五音도 만

---

20) 『路史·後記』卷三「炎帝」: “乃命赤冀創捩鐵爲杵臼, 作鉏耨·鐵鑄·鬻·井·竈, 以濟萬民.”  
 21) 『淮南子·汜論訓』: “炎帝作火, 而死爲竈.” 高誘注云: “炎帝, 神農, 以火德王天下, 死托祀于竈神.” 『論衡·祭意』: “炎帝作火, 死而爲竈.”  
 22) 『太平御覽』八三三引『逸周書·考德篇』: “神農耕而作陶.” 『廣韻』引『逸周書·考德篇』: “神農作瓦器.” 『物原』: “神農作甕”.  
 23) 南朝 梁 劉勰『劉子新論』: “神農氏弦木爲弧, 剡木爲矢, 弧矢之利, 以威天下. 其後蚩尤強暴, 好習攻戰, 銷金爲刀, 割革爲鉞, 而兵遂興矣.”  
 24) 陸羽『茶經』: “茶之爲飲, 發乎神農氏.” 這可能與他的葬地「茶陵」有關. (宋 羅泌『路史·後記』: “(炎帝神農氏)崩葬長沙茶鄉之尾, 是曰茶陵, 所謂天子墓者.” 羅萃注云: “『郡國志』云: ‘炎帝神農氏葬長沙. 長沙之尾, 東至江夏, 謂之沙羨. 今郡有萬里沙祠, 故曰長沙.’ 『世紀』云: ‘神農葬茶陵.’ 『衡圖經』云: ‘茶陵者, 所謂山谷生茶茗也.’ ” 『炎帝和炎帝陵』 69-70쪽에서 인용.

들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神明的 덕에 통하고 天地에 조화롭도록 하였다.<sup>25)</sup>

그의 시대는 이같이 많은 문물이 발명되어 대량으로 제조되고 편리한 농기구의 사용으로 수확도 많아져 모든 것이 풍성해졌을 것이다. 그는 여분으로 남은 것을 필요한 것과 바꾸어 쓰도록 시장을 열고 교역하도록 지도하였다.

『周易·繫辭』下: 포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일어나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굽혀 쟁기를 만들어, 경작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교화하였으니 諸益을 취한 것이다. 日中에 시장을 열어 천하의 백성을 이르게 하고, 천하의 물화를 모아, 서로 바꾸어 물러가서 필요한 곳에 두도록 하였다(“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은 염제신농에게서 비롯되었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문화영웅이라 할 수 있다.

#### 2.4.2 桓雄의 「主刑·主善惡」 및 「主人間三百六十餘事」

환웅의 ‘主刑’과 ‘主善惡’은 고대한국인의 법률관과 도덕관을 나타내며, ‘主人間三百六十餘事’는 염제신농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도구의 발명과 文化創始와 유사하다 하겠다. 360여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년 360여 일로, 이것은 바로 일년 360여일 동안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衣食住·生老病死·社會制度·行刑制度·道德·倫理 등등으로, 이것은 또한 환웅이 風伯·雨師·雲師를 데리고 “在世理化”한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형법과 선악을 주관했다는 기록으로부터, 당시 사회가 이미 상당히 복잡해지고, 인류의 번성과 아울러 사회구성원의 직능도 복잡하고 다양화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환웅은 “主穀·主命·

25) 『山海經·海內經』: “帝俊生晏龍, 晏龍是爲琴瑟。” 郭璞注: “『世本』云: 伏犧作琴, 神農作瑟。” 郝懿行箋疏: “『說文(十二)』云: ‘琴, 神農所作; 瑟, 庖犧所作.’ 此注蓋傳寫之譌。” 漢 桓譚『新論』: “昔神農氏繼宓戲而王天下, 上觀法于天, 下取法于地, 于是始削桐爲琴, 練絲爲弦, 以通神明之德, 合天地之和焉。” 清 雷學淇輯『世本·下篇』: “神農作琴, 神農作瑟. 神農氏, 琴長三尺六寸六分, 上分五弦, 曰宮·商·角·徵·羽. 文王增二弦, 曰少宮·少商.”

主病”했던 太陽神·農業神·醫藥神 신격 이외에도, 또 “主刑·主善惡”했던 法神·道德神 등 사회 인륜과 관계되는 신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중의 신격은 비록 환웅으로 모두 대표되기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관리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건대 風伯·雨師·雲師 이외에도 사회의 각 분야를 관리했던 하위의 小神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는 아마도 환웅이 인솔했던 3천의 무리가 바로 그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기록에는 환웅이 모든 일을 관장하였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발명의 공을 염제신농에게 돌렸던 중국 고대인들의 지도자에 대한, 즉 문화발전을 지도한 선구자적인 문화영웅에 대한 존경심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 3 桓雄과 炎帝神農의 역사·문화발전 단계상의 위치

인류문명사상 농경의 발명은 결정적인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원시적인 채집과 수렵생활에서 벗어나, 비교적 높은 단계의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 사회가 점차 복잡해져서, 많은 사회제도가 요구되어지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도구들도 점차 많아졌을 것이다. 이 시기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고, 이러한 지도자는 이미 至高의 創世神이 아닌, 점차 人性에 가까워지는 半神 半人의 문화영웅이 되는 것이다. 大林太良은 「神話學入門」에서:

문화영웅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화 중의 인물은 至高神과는 다르다. 먼저 문화영웅의 경우는, 이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을 인간의 세계에 가져다 주고 있다. …… 또 문화영웅은 결코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며, 불이라든가 농경 등 특정한 문화 요소라는 한정된 범위의 창조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신의 전면적인 창조행위와는 다르다(大林太良 兒玉仁夫 1966, 119-120).

라고 했는데, 환웅이 창세신 환인의 아들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세상의 여러 가지를 주관한 것과, 염제신농이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지도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즉 그들은 모두 창세신이 세계를 창조한 위에서 지도하고 발명한 것으로 문화발전 단계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大倥敎의 『三一神譜·神事記』는 ‘桓因’을 創造主, ‘桓雄’을 敎化主, ‘檀君’을 治化主라 하였다. 전술했듯 桓雄이 穀·命·病·刑·善惡 등의 人間三百六十餘 일들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부친 桓因은 그를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신화 속에는 비록 환인의 신격과 업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그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거하며 “下視三危太伯”했던 전지전능의 지고의 창세신이였음에 틀림없다.

桓雄은 천상에서 하강하여 桓因이 創造한 지상세계에서 만백성을 敎化(“在世理化”)하였으며, 그의 아들 단군은 조선을 개국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환인 환웅 단군 삼위의 위치와 순서를 그려 堯제신농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桓因(創造) → 桓雄(敎化) → 檀君(統治)  
 伏羲·女媧(創造) → 炎帝神農(敎化) → 黃帝(統治)

伏羲씨가 몰하자 炎帝神農이 일어났다고 『周易』에서도 언급했듯이, 堯제신농 이전에 伏羲·女媧<sup>26)</sup> 등의 創世神이 있었다. 炎帝神農은 바로 그들이 개벽하고 인류를 창조한 기초 위에서 백성들에게 농경을 가르치고 불과 약초로 질병을 치료케 하고, 많은 용구들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토록 하고, 시장교역을 하도록 敎化하였다. 그리고 黃帝가 나타나 신농을 이어 역사 속에서 진정한 국가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4 『三國遺事·古朝鮮』條의 기록을 통한 桓雄年代 고찰

『三國遺史·紀異』 卷第一 「古朝鮮」條에서 중간의 桓雄神話 부분을 제외한 단군에 관한 문장은 모두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檀君王儉이 있어, 도움을 阿斯達에 정

26) 『說文』: “媧, 古之神聖女, 化萬物者也.” 『太平御覽』卷七引『風俗通』: “俗說天地開闢, 未有人民, 女媧搏黃土作人, 劇務力不暇供, 乃引繩於泥中, 舉以爲人.”

하고 나라를 開創하여 朝鮮이라 일컬으니 堯와 같은 시대라 하였다.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桓因의 庶子 桓雄이 있었는데, …… (神話 部分) ……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壇君王儉이라 하였다. 唐堯가 즉위한지 五十年인 庚寅(原註: 唐堯 즉위 원년은 戊辰이므로 오십년은 丁巳이지 庚寅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지 의심된다)에 平壤城에 도읍을 정하고 朝鮮이라 칭하기 시작했고, ……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周武王 즉위 己卯년에 箕子를 朝鮮에 봉하자 壇君은 藏唐京으로 옮기었다(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堯)同時.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堯)即位五十年庚寅(唐堯即位元年戊辰, 卽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 始稱朝鮮. …… 御國一千五百年. 周虎(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桓雄의 시대를 고찰하려면 먼저 단군시대를 먼저 고증해야 할 것인 바, 이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적출해 낼 수 있다. 첫째는 『魏書』와 그 내용인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이고; 둘째는 『古記』의 내용들인 “堯와 같은 시대”, “唐堯가 즉위한지 50년”이고,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周武王 즉위 기묘년에 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 등이다.

이 중에서 단군의 건국년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기록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와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이고;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는 『위서』의 본질을 밝히는 기록이다. 이를 아래에서 2개 節로 나누어 『魏書』문제와 아울러 단군시대·환웅시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1 “『魏書』云, 乃往二千載.”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壇君王儉이 있었다” 라고 한 것은 『위서』가 저술된 시점을 말해준다. 즉 단군건국 후 2천년에 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서』의 본질을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주지하듯이 『위서』는 종래로 문제의 초점이 되어왔다. 李丙燾는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에서:

오늘에 전하고 있는 『魏志』·『魏書』 등에는 도무지 위와 같은 壇君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보면 이른바 『魏書』는 오늘에 전하지 않는(즉 이미 없어

진) 어떤 『魏書』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 이른바 『古記』는 『檀君古記』의 약칭으로 보겠거니와, 그것이 어느 때에 된 기록인가는 자세하지 않다. 說話 자체로 볼 때는 꼭 오랜 옛날의 所傳같으나, 그 가운데 평양성의 이름이 보이고, 또 ‘堯(高麗 제3대 定宗의 諱)’字를 피하여 ‘高’字로써 하고, 周武王의 ‘武(高麗 제2대 惠宗의 諱)’字를 피하여 ‘虎’字로써 한 것을 보면 高句麗시대 내지 高麗시대에 약간의 潤筆이 가해진 것이라고 추찰된다”(李丙濤 1977, 47-52).

라고 하여 『위서』에 그 기록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사실 중국의 史書인 晉의 陳壽가 저술한 『三國志·魏志』나 北齊의 魏收가 편찬한 『위서』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日帝는 一然이 허구를 인용했다 하여 고조선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부단히 『위서』 문제를 천착하여 이를 『魏略』과 같은 『위서』류일 것이라 보기도 하고,<sup>27)</sup> 망실한 正史로 보기도 하였다. 李相昊는 「단군설화의 역사성」에서:

일연은 위수의 『후위서』와 『삼국지·위지』와 曹魏의 정사들인 『위서』를 정확히 구별하여 인용 서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분명히 “魏書云”이라고 출전을 밝히고 있는 단군기사가 『위서』가 아닌 금본 『후위서』나 『삼국지·위지』에 실렸을 리가 만무하다. …… 단군기사가 실렸던 『위서』는 분명히 조위의 『위서』 계열 정사들임에 틀림없으며 해당 『위서』는 일연이 지명한 서명 그대로 이미 실전된 왕침(王沈)의 『위서』나 하후담(夏侯湛)의 『위서』였음을 알 수 있다(이형구 1995, 320-321).

라 하고, 근 20종의 『위서』 계열 문헌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두 종류의 『위서』만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다 하였다.<sup>28)</sup>

이는 모두 『위서』를 중국의 史書로 단정한 결과이다. 필자는 『위서』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 고대의 사서였다고 본다. 이는 『삼국유사』 본문에서 『위서』에 뒤이어 인용되는 『고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병도는 위에서 『고기』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전승되던 설화

27) 김병룡 「단군의 건국사실을 전한 『위서』에 대하여」: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의 위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름있는 역사책들만도 근 20종을 꼽을 수 있다. …… 曹魏의 『위서』들 가운데는 3세기 중엽 위나라 어환(魚豢)이 저술한 『위략』과 같이 우리나라 고대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비교적 상세히 싣고 부여의 건국전설까지 전한 역사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위의 위서류들에 단군의 건국 기사를 소개한 역사책 『위서』가 있었을 것은 별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니다.”(이형구 1995, 93-95)

28) 이형구 『단군과 단군조선』 1995, 321.

를 기록한 『단군고기』의 약칭일 것이라 하였다. 『위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전해지던 고대왕조의 역사서일 것이다. 一然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민족의 發祥과 최초 국가의 기원을 저술하는 역사적 저작의 冒頭를 허구나 또는 다른 나라의 사서, 그것도 正史가 아닌 『위서』류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함을 자부하며 정통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 문헌 『고기』와 『위서』를 인용하였을 것이다.

『위서』는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위서』의 저작 시기가 단군왕검 2천년 후인 것을 말한다. 위만조선의 건국년대는 B.C 194년이다. 그러므로 2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2194년이 된다. 『삼국유사』 본문에 “(단군왕검은) 唐堯가 즉위한지 50년인 경인에 평양성에 도움을 정하고 조선이라 칭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요임금의 즉위 년도는 B.C 2357년이므로 그 50년 후는 2307년이다. 위만조선을 기준으로 한 2천년 전과는 불과 113년 차이날 뿐이다. 더구나 고대에서 말하는 2천년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라 2천여 년이라 볼 때 거의 근접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서』는 단군조선 2천여 년 후인 위만조선 때 씌어진 역사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는 일연이 衛滿朝鮮의 ‘衛’를 굳이 ‘魏’로 쓴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정사 속에는 모두 衛滿이라 기재되어 있는데도, 일연은 「고조선」조의 다음 條 명칭을 「魏滿朝鮮」이라 하고 그 문장 안에서도 魏滿이라 호칭하였으며, 더우기 「馬韓」조에서는 『삼국지·위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하면서도 魏滿으로 기재하였다.

『삼국지·위지·동이전·韓』: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삼국유사·마한』: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이 같이 3차례 모두 魏滿이라 쓰고 있으므로 실수나 착오에 의한 誤記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연이 「魏滿朝鮮」과 「魏滿」이라고 기록된 문헌을 분명히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衛滿이 조선으로 올 때의 모습은 “퇴결만이복(椎結蠻夷服)” 형상이었다고 한다.<sup>29)</sup> 이병도

29) 『漢書』卷95「朝鮮傳」: “朝鮮王滿, 燕人. ……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椎結蠻夷服而東走出塞, 度溟水, 居秦故空地上下障.”

는 이에 대해 『삼국유사·위만조선』의 譯註에서:

‘퇴결’은 상투, ‘만이복’은 조선인의 의복을 말한 것이니 滿이 千餘人の 무리와 함께 입국할 때에 조선 식의 首飾과 의복을 입고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만이 순수한 漢人系統의 燕人이 아니라 遼東土着의 朝鮮人계통의 燕人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다(이병도 1977, 181).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만은 조선사람으로서 비록 燕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하기는 했지만 고국의 생활풍습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단군조선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고국의 복색으로 돌아왔고 나라이름도 “조선”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 ‘魏’로 冠姓하거나 改姓했을 가능성도 있다.<sup>30)</sup>

『위서』는 위만조선을 세우고 쓴 역사서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 라고 한 것은 조선 역사의 유구함을 자부하는 것이며, 위만조선이 이같이 오랜 역사의 단군조선을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 『위서』가 일연 생존시까지 전해져서 인용되었거나, 아니면 그 佚文이 다른 서적에 轉載되어 있는 것을 일연이 접하고 인용했거나 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위서』는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가능성이 크다.

#### 4.2 “御國一千五百年·封箕子於朝鮮”

앞 절에서 언급한 단군 개국년대는 위만조선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건국 紀年 B.C 2333년은 13세기 말 고려시대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요임금 즉위 50년 戊辰”을 따라 계산한 년대이다.<sup>31)</sup>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요임금의 건국년대는 B.C 2357년이므로 즉위 후 50년은 B.C 2307년이므로 너무 늦다. 그래서인지 그는 단군 건국년대를 요임금 즉위 25년으로 보고 B.C 2333년을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30) 『사기·조선열전』에는 姓이 없이 이름 ‘滿’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후한서·동이열전』에 이르러 비로소 ‘衛滿’이라는 성명이 모두 보인다.

31) 현명호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 문제에 대하여」, (이형구 1995, 88-89).

단군은 箕子東來 때까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기자가 조선에 온 시기에 대해서는 “殷의 道가 쇠망하자 조선으로 갔다”는 殷末<sup>32)</sup>과 周初의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삼국유사』는 “周武王 즉위 己卯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라고 『史記』<sup>33)</sup>·『後漢書』<sup>34)</sup>를 따라 周初로 기록하고 있다. 두 가지 설을 보면 기자는 殷周交替 시기에 동래한 것이고 이는 B.C 1122년이다. 그러므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2622년이 곧 단군 건국년대가 되는 것이다. 孫永鍾은 「고조선 3왕조의 시기구분에 대하여」에서 이 1500년 설이 고유하고 믿음성 있는 전승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간략하게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唐堯 무진/경인부터 周武王 기묘까지는 옛날 학자들의 계산법대로 해도 1212/1189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 간 통치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1500년은 당요 주무왕과는 관계없이 따로 전해오는 유력한 년대이다. …… 또 거의 모든 사서들에서 당요 동시건국과의 연관 속에 있는 殷 武丁 8년 乙未년(1286)이나 주무왕 기묘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꾸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786년 또는 기원전 2622년으로 되어 역시 당요의 연대(전 24세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1500년 설은 당요 동시설과는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오랜 고유한 전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형구 1999, 313-314).

단군 통치 1500년 설은 위에서 고찰한 『위서』나 『고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전해지던 신빙성 있는 고유의 전승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의 건국년대를 우리는 B.C 2622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연은 우리민족 최초 국가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명감과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함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문헌과 전승을 인용하여 『삼국유사』의 제1편 제1조를 저술했을 것이다.

B.C 2622년은 요임금보다 훨씬 이전인 黃帝시대(B.C 2698-2358)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단군의 父神인 환웅의 년대는 아무리 늦어도 B.C 3000년 전후일 것이다. 이는 바로 황제 이 전시대인 염제신농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년대는 B.C 3218-2699년이다. 그러므로 환웅과 염제신농이 교화활동을 했던 것도 거의 동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32) 『漢書』卷28下「地理志」第8下：“殷道衰，箕子去朝鮮，教其民以禮義，田蠶織造。”

33) 『史記·宋微子世家』：“箕子者，紂親戚也。… 武王克殷訪問箕子。…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34) 『後漢書』卷85「東夷列傳」：“昔武王封箕子於朝鮮，箕子教以禮義田蠶，又制八條之教。”

## 5 結 言

『三國遺事』의 환웅과 炎帝神農은 韓·中 두 민족의 고대문화 발전과정 중에서 동일한 단계 위에 있었다. 그들은 똑같이 백성을 敎化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교화의 내용은 모두 그들의 神格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 즉 인류의 생존과 농경에 필수적인 태양신 신격과, 농경을 처음으로 가르친 농업신 신격, 그리고 당시의 원시적인 의식주 생활로 인해 발생했던 질병의 의료를 담당한 의약신 신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사회에서 요구되어지던 문물과 문화의 발명·창시를 담당한 문화영웅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환웅과 堯제신농은 문화발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교화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국가 통치를 시작한 단군과 黃帝의 전단계에 있었는데, 『삼국유사·고조선』조의 기록을 통하여 단군의 건국년대(B.C 2622년)를 고찰한 결과 黃帝 통치년간(B.C 2698-2358)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를 통하여 환웅의 년대를 B.C 3000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堯제신농 시대(B.C 3218-2699)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환웅과 堯제신농은 상고시대 신화 속에서 유사한 신격을 가진 신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발전 단계와 역사상에 있어서도 동일한 단계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맡은 바 임무 즉 교화활동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는 결코 과장된 虛數가 아니다. 환웅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5천여 년’의 역사인 것이다. 환웅신화는 단지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 상고시대의 역사이고 생활상이었음이 틀림없다. 그것이 끊임없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혹은 『위서』나 『고기』처럼 기록되었던 책이 散逸되기도 하다가, 고려시대 일연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한 문헌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一然의 『三國遺事·紀異』 卷一 「古朝鮮」條는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고시대 역사의 귀중한 기록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자료

- 姜貴守. 1975. 「檀君神話의 研究」. 『公州師大論文集 13』. 공주: 공주사대.
- 金戊祚. 1989. 「韓國神話의 原型」. 서울: 正音文化社.
- 金琿永. 1968. 「檀君神話의 研究」. 『朝鮮大學 語文學論叢 8』. 광주: 조선대학교.
- 羅景洙. 1993. 「韓國의 神話 研究」. 서울: 敎文社.
- 大林太良著·兒玉仁夫·權泰孝譯. 1996. 「神話學入門」. 서울: 새문사.
- 申采浩. 1977. 「朝鮮上古史」. 서울: 東西文庫.
- 柳東植. 1978.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尹哲重. 1998. 「韓國의 始祖神話」. 서울: 보고사.
- 李丙燾. 1977.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서울: 瑞文堂.
- 李承休. 1974. 「帝王韻紀」. 서울: 乙酉文化社.
- 李恩奉 編輯. 1994. 「檀君神話研究」. 서울: 온누리.
- 이형구 엮음. 1995. 「단군과 단군조선」. 서울: 살림터
- 이형구 엮음. 1999. 「단군과 고조선」. 서울: 살림터
- 一然·李丙燾역주. 1977. 「三國遺事」. 서울: 廣曹出版社.
- 張德順. 1978. 『說話文學概說』. 서울: 二友出版社.
- 崔南善. 1973. 「韓國史 II」. 『六堂崔南善全集 2』. 서울: 玄岩社.

### 2. 국외자료

- 郭璞注·郝懿行疏·袁珂校注. 1983. 「山海經校注」. 上海古籍出版社.
- 馬驥(清). 1969. 「釋史」. 臺北: 廣文書局.
- 班固撰(漢)·(唐)顏師古注. 1975. 「漢書」. 臺北: 洪氏出版社.
- 「世本八種」. 1974. 臺北: 西南書局.
- 劉安著·劉文典集解. 1971. 「淮南鴻烈集解」. 臺北: 明倫出版社.
- 王嘉(晉). 1982. 「拾遺記」. 臺北: 木鐸出版社.
- 袁珂. 1982. 「古神話選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袁珂. 1986. 「中國神話傳說詞典」. 香港: 商務印書館.

- 劉城淮. 1988. 「中國上古神話」.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林惠祥. 1971. 「神話論」.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左丘明 著·晉 杜預注. 1976. 「左傳」. 臺北: 藝文印書館.
- 丁山. 1988. 「中國古代宗教與神話考」.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宗懷著·譚麟譯注. 1985. 「荊楚歲時記譯注」. 湖北人民出版社.
- 鍾宗憲. 1994. 「炎帝神農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 株洲市修復炎帝陵籌備委員會編. 1988. 「炎帝和炎帝陵」.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 「周易」. 1976. 臺北: 藝文印書館.
- 許慎(漢)撰·玉裁(段)注. 1976. 「說文解字」. 臺北: 藝文印書館.



КСІ